

人文論叢

81권 2호

2024년 5월

서평

www.kci.go.kr

한국여성문학사의 큰 첫걸음

김경미*

[서평] 이경하(2023),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20쪽

1. 기다려 온 여성문학사

문학사 서술은 한국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꾸준히 계속되었고 『한국문학통사』라는 결실을 보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한국여성문학사 서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한국여성문학사 서술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그 중 한두 가지만 들여보면,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는 고전문학사에 등장하는 여성 작가를 총괄해서 총람을 만들어 제시하고 7장 “고전 여성작가 문학의 사적 연구”에서 삼국·통일 신라기로부터 조선후기까지 시대를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여성문학사의 선례를 보여 준 것이다.¹ 또 『한국고전여성시문학사』는 상고시대로부터 20세기까지 나온 여성 작가의 시를 총괄하여 다룬 고전여성시사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² 그러나 여성문학사의 개념이나 범주, 여성문학사의 시대구분, 서술의 시각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서술한 여성문학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존의 한국문학사 서술에서도 여성문학의 성과를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문학통사』 제4권이 ‘세계화, 지방화, 평등화’라는 새로운 지표표를 추가하고 평등화의 하위지표로 남녀평등의 문학사를 제시한 것이 그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부교수

1 이혜순 외(1999),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pp. 525-582.

2 조연숙(2014),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국학자료원, pp. 1-361.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는 않아서 기존 서술 체계에 여성문학을 덧붙인 것으로 평가되었다.³ 여성문학사는 기존에 누락된 여성작가의 작품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학사를 서술하던 방법과 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서술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며 바뀐 문학사는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이다.

이경하의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는 여성문학사 서술에 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서이자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생활의 실상을 바탕으로 여성어문생활사라는 개념을 이끌어내어 서술한 새로운 문학사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여성문학의 개념, 범주, 대상, 서술 시각 등 여성문학사 서술과 관련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이 책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천적이라는 점에서 여성문학사 연구와 서술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반갑고 귀하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사의 범위와 시각,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 새로운 문학사의 형식,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제라는 각 부의 제목에서 보듯이 이 책은 문학사의 범위와 시각부터 새로운 문학사의 형식까지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려고 할 때 짚어야 할 문제들을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특히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을 다룬 2부는 전통인식의 문제, 여성주의 시각의 문제, 시대구분의 문제 등 여성문학사 서술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여성문학사 서술에 관한 이론과 여성문학사의 실재를 두루 섭렵한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2부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충실히 고려한 뒤 저자는 새로운 문학사의 형식,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재를 제시한다. 특히 어문생활사 개념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서술 방식은 이 책이 새롭게 제시하는 여성문학사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책이 제시하는 여성

— www.kci.go.kr

3 박부영(2005),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 『고전문학연구』 28, p. 88.

문학사 개념과 범주, 목표, 여성문학사 서술에 관한 저자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한 뒤 어문생활사 개념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존의 문학사를 바꾸는 여성문학사

문학사를 비롯한 역사서술의 허구성을 당연시하는 현대의 지적 풍토 속에서 여성 '문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필요한가? 저자는 여성문학사 서술을 기획하면서 그 자신이 맞닥뜨렸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성문학사의 의의와 필요성을 더 힘주어 제시한 듯하다. 저자는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에 가해진 비판들을 소개하고 여성문학사라고 해서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에 주어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여성문학사와 기존의 문학사 서술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성을 비롯한 주변부 집단이 갖는 소수성의 본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소수성의 본질은 다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활동을 생성하는, 권력과 대결하는 변이의 힘이다.⁴ 그렇다면 여성 집단이 갖는 변이의 힘, 소수성의 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저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성문학전통론을 포함해서 페미니즘 이론이 자체 비판과 수정 과정을 거쳐 초기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나간 과정 자체가 이러한 변이의 힘, 소수성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다.⁵ 따라서 여성문학사 서술은 기존의 문제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문학사 서술을 바꾸는 새로운 문학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4 이경하(2023),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67.

5 이경하(2023), p. 67.

1970년대에 본격화된 여성운동은 정체성의 정치로서 여성이란 추상적 공동체를 전제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고 여기서 파생된 억압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본질론적 개념에 기초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성은 누구인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여성문학사를 쓰려면 그 여성이 누구인지부터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자는 스피박(Spivak)과 버틀러(Butler)가 제기한 이러한 여성 주체의 문제에 대해 스피박이 성별화된 하위 주체의 역사적 재현을 문제 삼으며 본질론적 개념에 기초한 정체성을 거부했지만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 상정하는 모든 역사서술이 불필요하며 무의미함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한다. 또 스피박의 해체론은 오히려 주변화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해방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버틀러도 ‘우리 여성’이라는 집단의 설정 자체를 비판했지만 성별 정체성의 ‘전략적’ 의미를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여성 간의 동질성에 기반한 여성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계층과 지역, 시대 등에 따른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여성문학사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하여 여성들 내부에서의 차이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⁶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문학사 서술의 현실적 필요성을 소수집단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위치를 통해 다시금 분명히 제시한다. 저자에 의하면 여성을 비롯한 소수집단에게 과거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현재의 정체성 형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나 문학은 집단에 관한 기억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따라서 여성문학사는 여성에 대한 기억과 문학을 통해 구성되고 전달되는 여성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성별화된 주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⁷이라는 것이다.

6 이경하(2023), pp. 67-68.

7 이경하(2023), p. 69.

저자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이처럼 실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재하던 여성의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여 여성문학전통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자국문학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요컨대 여성문학사 서술의 의의는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정체성 정치의 실천적 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을 보완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성문학전통을 탐색하고 여성문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문제는 문학사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이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작가와 작품의 존재를 자국문학사의 빈틈에 끼워 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여성문학사 서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⁸

여성해방운동에 실천적 힘을 제공하고, 문학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여성문학사의 의의라고 할 때 문학사를 새롭게 짚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까지 여성문학사 서술은 여성 작가의 존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 작가의 작품들은 기존의 문학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조선시대까지 여성의 문학활동은 기존의 문학사에서 말하는 문학활동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당시의 중심 문자라 할 수 있는 한문으로 글을 쓴 여성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고전번역원이 정리, 출간한 한국문집총간에 포함된 문집이 총 1,259권인데 그중 여성 작가의 문집은 단 3권이다. 문집으로 수습되지 않고 개별 시집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작가의 문집 속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지만 문집의 차이에

— www.kci.go.kr

8 이경하(2023), p. 79.

서 보듯 남성 작가의 작품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분량이다. 여성들이 한문으로 쓴 글이 이보다는 많지만 정리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한글작품들은 그에 비해 많이 남아 있지만 편지나 일기 같은 사적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적 열세는 양반 남성이 지식을 독점한 결과지만 여성문학이 미미한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편견을 낳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가능한가라는 회의를 갖게 한다. 저자는 외국의 여성문학사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문학의 범주를 시, 소설, 희곡이라는 협의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사적인 일기나 편지 등을 포괄하는 글쓰기 전반으로 확대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문학적 전통을 학습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남긴 글들은 이른바 문학의 전통 속에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여성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문학의 관습적 갈래 체계를 넘어서 생각하고⁹ 미학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대상이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서술시각을 변화시키고 초점을 이동하고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그럴 때 미학적 가치 기준, 정전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중심과 주변의 서열이 달라지고 문학사는 새롭게 구성된다.¹⁰

역사 서술에서 시대구분이 중요하듯이 문학사 서술에서도 시대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문학을 누락한 기존 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여성문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시대구분은 역사에 대한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성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자국 문학사 서술이 기존에 마련해 놓은 문학사 인식의 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기존의 한국문학사 서술이 '문학'의 역사적 변화를 해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여성문학사 서술은 '여성'의 문학활동과 그에 대한 사회인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지속되어 온 과정을 해명하는 데 목적

9 이경하(2023), p. 59.

10 이경하(2023), p. 80.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여성문학 활동의 양상과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¹¹고 했다. 여성어문생활사 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시대구분, 여성사의 특성을 반영한 시대구분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어문생활사의 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시대구분은 어떤 형식이 될까?

3.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을 통한 여성어문생활사

새롭게 쓰는 문학사를 보여 주는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문생활사의 관점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문학활동이 제한적이고 남성과 달랐던 조선여성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따르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외국의 여성문학사 서술에서도 여성문학의 대상을 글쓰기 전반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지만, 저자는 어문생활사라는 개념을 이론화하여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뿐만 아니라, 주체의 어문활동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3부 “새로운 문학사의 형식”의 1장 “여성어문생활의 젠더권력관계 해명”에서 저자는 문학을 어문생활의 개념으로 재규정하고 어문생활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층 및 젠더의 권력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저자는 문학을 어문생활의 개념으로 재규정한다. 문학과 어문생활은 어떻게 다르며, 문학을 어문생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저자의 구분에 의하면, 문학은 개인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떠올리게 하고 예술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 개념은 여성의 어문활동이 공적으로 금지된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을 비롯한 과거 여성들의 문학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문생활사 개념이다. 어문생활이란 어문활동의 주체가 기존의 텍스트를 소비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 전체이며 동시에 그 텍스트¹²를 말한다. 여기서 어문은 언어와 문자를 통칭하며 문학 개념에서 예술성의 무게를 의도적으로 탈각시킨 것이다. 예술성은 흔히 문학과 비문학을 가르는 기준으로 인식되는데 예술성을 탈각시킨 어문생활 개념에는 문학과 비문학이 다 포함된다. 생활이란 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어문생활은 어문활동 자체를 강조하는 개념이다.¹³ 저자는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텍스트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텍스트중심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문학작품이 문학사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문생활사는 글쓰기의 결과물로서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전단계인 글 읽기를 포함해서 문자 행위로서 글쓰기 전 과정을 서술대상에 포함한다. 어문생활사는 여성의 어문생활이 공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과거 여성의 문학생산력이 남성에게 비해 약했던 상황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다. 여기서 어문생활의 사례로 든 것은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1652~1712)가 딸, 며느리들과 함께 「소헌성록」을 비롯한 국문소설을 즐겨 읽고 필사했으며 죽기 전에 생전에 필사한 소설책들을 자손들에게 분배했던 일이다. 용인 이씨는 직접 문학텍스트를 생산한 작가는 아니지만 문학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규방 내에 국문소설이 유통, 소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학작품의 생산이 일정한 소비단계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학 소비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어문생활 개념은 텍스트보다 언어문자로 이루어지는 주체의 소비·생

12 이경하(2023), p. 188.

13 이경하(2023), p. 191.

산 활동과 그 대상 및 결과물을 ‘문화현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반영한다. 어문생활의 관점은 ‘문학이 본령’이라는 문학연구의 대전제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을 제안하며, 어문활동의 주체인 여성의 입장¹⁴을 강조하고, 여성어문생활사에 대한 이해는 그 주체인 여성의 삶 자체에 대한 풍부한 논의의 기반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문학사와 여성사는 만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성어문생활사의 과제는 예술로서 어문활동과 일상으로서 어문활동이 어떻게 구분되고 교섭하며 여성어문생활사가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을 최종의 목표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여성사와 적극 만나는 어문생활로의 전환은 현 단계의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필요한 일이며 그 성과가 일정 정도에 도달했을 때 다시 문학의 독자적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저자가 주장한 어문생활사로의 전환은 여성문학사 서술뿐만 아니라 문학사 서술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문생활사로 확장될 때 더 다양한 주체의 어문생활을 다룰 가능성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여성어문생활사는 어떤 체계와 형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저자는 거시적 통사와 미시적 단면사, 연대기적 서술의 변용을 제안한다. 저자는 거시적 통사와 미시적 단면사가 한국여성어문생활사 서술에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시사는 거시사가 놓치기 쉬운 역사적 실체에 주목하는 만큼 개인의 모습이 가려질 위험을 덜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한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을 제안한다.

여성어문생활사를 젠더권력관계라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에 대한 강조는 항상 개별적 사례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은폐할 위험

14 이경하(2023), p. 194.

15 이경하(2023), p. 200.

을 안고 있다.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은 젠더권력관계를 해석의 중심에 놓되, 구체적인 사건들에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작자·연대미상이라는 고전여성문학의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적 서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¹⁶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무엇이며 여성어문생활사는 어떤 사건들을 선택해서 서술할 것인가? 저자는 여성어문생활사의 면면에 배어 있는 젠더권력관계에 대한 해명을 여성어문생활사의 핵심적인 과제로 본다. 따라서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에서도 여성어문생활사를 틀 지우는 젠더권력관계에 대한 분석과 여성담론 속에 배어 있는 각 시대의 젠더 관념에 대한 규명이 매 사건을 해석하는 기본 관점이 된다고 한다.¹⁷

저자가 말하는 사건은 큰 문학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개인적 사건들을 포함한다.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을 선택할 것인가?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연대기적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들 가운데서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국문과 한문, 구술성과 기록성, 소비활동과 생산활동, 글쓰기의 일상성과 문예성 등 여성어문생활의 여러 국면을 가능한 한 폭넓게 재현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개별 사건들은 사적 흐름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화된다. 저자는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연대가 확실한 사례를 대표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 항목 내에 유사한 일군의 사건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¹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서술은 문학작품 또는 작가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저자 스스로도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은 가장 낡은 것일 수도 가장 세련된 것

16 이경하(2023), pp. 246-247.

17 이경하(2023), p. 254.

18 이경하(2023), p. 250.

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문학사 인식이 서술형식의 새로움을 통해 구체화되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¹⁹고 하며 그 의의를 강조한다. 여성들이 쓴 글들의 목록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 연대기적 서술은 여성어문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건을 나열한 밋밋한 역사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 실재를 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4.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재를 통해 생각하게 되는 문제들과 그 의미

이 책의 제4부는 앞서 다룬 새로운 문학사의 형식을 반영해서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재를 보여준다. 제4부의 제목은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재다. 조선여성문학사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의 여성문학사는 고려여성문학사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여성문학사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여성문학사 서술 부분에서는 여성문학사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여성문학사의 시대구분 기준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자수단의 위상과 여성담론의 변화이고, 조직화한 원리는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소혜왕후의 시대, 황진이와 허난설헌의 시대, 『병자일기』의 시대, 소설과 규방가사의 시대, 『규합총서』의 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 아래 선택한 사건들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우선 이 시대구분을 보면 기존의 문학사나 역사 서술에서 볼 수 있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

또는 중세, 근대 등의 시대구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구분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적어도 여성어문생활사만의 독자적 시대구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각 시대의 명칭을 보면 소혜왕후, 황진이, 허난설헌 같은 인물을 내세우거나 『병자일기』나 『규합총서』 같은 텍스트를 내세우는가 하면 또 소설과 규방가사 같은 장르를 내세우고 있어 명칭의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병자일기』는 남평 조씨의 일기인 것이 알려져 있고 『규합총서』도 빙허각 이씨의 저서인 것이 알려져 있는데 굳이 남평 조씨의 시대 또는 빙허각 이씨의 시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여성어문생활사 각 시기의 특성을 잘 반영한 명칭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머리말에서 일부러 유명한 것을 골랐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먼저 저자가 제시한 시대구분의 근거를 보자. 저자는 소혜왕후의 시대는 상층이 한문과 한글 모두로 여성 규범을 설파하기 시작한 시대로, 여성 규범이 최상층부터 성리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시대이며, 문자의 면에서나 여성담론의 면에서나 변화가 심해 여성의 삶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보았다. 이어 황진이와 허난설헌의 시대에 대해서는 한문과 한글문학이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를 배출한 시대, 한글 사용자가 늘어나는 시대, 한문으로 된 최초의 여성 문집인 난설헌의 문집이 나온 시대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병자일기』의 시대는 문자의 면에서 상층 여성이, 또는 상층 여성에게 한글로 편지나 일기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던 시대, 여성담론의 면에서는 유교가 조선식으로 변해 가던 시대라는 것을 시대 구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소설과 규방가사의 시대는 문자의 기능이라는 면에서 여성 소설 읽기에 대한 남성 문인의 경계가 심했으나 한글이 문학적 기능까지 충분히 해내고 있었던 시대로 한글 글쓰기뿐만 아니라 한문학도 풍성했던 시기로 잡고 있다. 마지막 『규합총서』의 시대는 1895년 윤희순의 의병가가 나온 시대까지를 말하는데 문자의 면에서나 담론의 면에서나 지향점이 극과 극으로 갈렸던 시대로 한글이 여성의 글로 굳어져

다양한 글들이 쏟아진 시기이면서 동시에 한문을 이용해 문집을 내는 여성들도 많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설명을 보아도 저자나 작품명을 붙인 각 시대의 명칭이 과연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각 시대의 서술을 보면서 시대구분의 근거를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혜왕후의 시대

- 1446년 훈민정음 반포와 여성의 편지 쓰기
- 1475년 소혜왕후의 『내훈』 편찬과 계녀서
- 1481년 『삼강행실열녀도』 언해본 편찬
- 1481년 『동국여지승람』 편찬과 구비설화

황진이와 허난설헌의 시대

- 1572년 이현보 어머니의 「선반가」와 기녀시조
- 1536년 사임당 신씨와 덕봉의 한문
- 1545년 인성왕후의 인종 유교와 행록
- 1591년 난설헌문집과 유성룡의 서문

『병자일기』의 시대

- 1603년 선조가 정숙옹주에게 보낸 중국소설 「포공안」 1절
- 1606년 수록회와 서사무가
- 1623년 『어우야담』 「일타홍이야기」와 여성주인공
- 1636년 남평 조씨의 『병자일기』와 전쟁과 여성
- 1668년 『매창집』의 간행과 기녀한시와 시조
- 1680년 김수항의 딸 안동 김씨와 장흥효의 딸 안동 장씨

이후 두 시대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앞의 연도를 보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로 나누어진다. 저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세기별 구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²⁰ 각 세기별로 여성어문생활사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작가나 작품을 시대의 명칭으로 내세운 듯하다. 이러한 연대기적 서술방식은 새롭게 발굴되는 작품을 언제든 끼워 넣을 수 있는 열린 형식이면서 동시에 세기별 특징을 보게 해 준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단계 여성문학사의 서술방식으로 유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 시대 명칭의 기준이 당시의 여성어문생활사를 잘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제시된 것을 보면 황진이를 제외하면 왕실의 여성과 양반여성의 어문생활이 서술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하위항목에서 구비설화와 기녀한시와 시조, 서사무가와 민요 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시대구분의 근거로는 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녀들의 어문생활은 집 밖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글쓰기를 했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한 시대를 대변하는 사건으로 내세울 순 없을까?

조선여성문학사의 실체는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학사로서 여성문학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어문생활사로서의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면서 독자적인 시대구분을 시도하고 어문생활의 젠더권력관계를 통해 여성주의적 시각을 분명히 한 점은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어문생활의 젠더권력관계가 조선의 유교가부장제,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논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여성사와의 관련 속에서 서술하는 여성문학사임을 거듭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문생활로 보는 여성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읽었지만 서술 전체가 여성어문생활 안으로 한정되고

20 『규합총서』의 시대가 1795년에서 1895년까지를 다루고 있어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4장 소설과 규방가사의 시대까지 포함 세기별 구분을 보여 준다.

있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경하의 시도는 지금까지 저술된 자국문학사에서 누락된 여성들의 과거를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지를 보여 주면서 자국의 문학사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보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책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의 출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론과 실재를 충실하게 보여 줌으로써 한국여성문학사의 큰 첫걸음을 내딛는 ‘사건’이다. 한국여성문학사 서술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발걸음은 한걸 가벼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 박무영(2005),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 이경하(2023),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혜순 외(1999),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제4판, 지식산업사.
- 조연숙(2014),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